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351-390
<https://doi.org/10.29212/mh.2025..137.3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60년대 북한 지도부 숙청과 권력구조 재편에 관한 연구

이준희 | 경희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1960년대 전반기(1961-1965)의 숙청
 3. 2차 당대표자회와 갑산파 사건(1966-1967)
 4. 5차 당대회 전후의 재편(1968-1970)
 5. 결론

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 북한의 지도부 변동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1967년 갑산파 사건과 1969년 김창봉·허봉학 사건 2가지 사건에만 집중하여 1960년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변화만을 살펴보았으며, 김일성이 정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공개된 북한의 자료들과 소련과 헝가리 외교문서들을 활용하여 1960년대 북한 정치사를 지도부 재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선행연구들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의 숙청은 67년과 69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60년대 전반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김일성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정적의 직무이동, 당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전략을 사

용하였으며 특히 반드시 다수의 우군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셋째,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 확립 과정의 수혜자들인 빨치산 2세대들과 김일성 친족들이 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북한 정치사는 김일성이라는 단독 행위자가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라기보다는, 김일성 밑에서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하위 행위자들이 충돌하는 정치적 무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0년대의 싸움에서 김일성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국가로 완전히 전환되게 된다.

주제어(Key Word) : 김일성, 김창만,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김창봉, 허봉학, 조선로동당 2차 대표자회, 갑산파 사건, 숙청

원고투고일 : 2025. 10. 12. 심사수정일 : 2025. 11. 25. 게재확정일 : 2025. 12. 15.

1. 서론

본 연구는 1960년대 북한 지도부에서 정확히 누가, 언제, 왜 숙청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숙청의 참가자와 수혜자들을 정리함을 통해 집권 초기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약 9년 동안의 기간이며, 지도부 구성원은,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로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숙청이란, 정치적인 이유로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정치위원회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적인 이유의 강등이나 해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숙청 중에서도 처형, 수용소 투옥 등이 수반되는 영구적인 숙청과 강등, 혁명화 이후 복귀가 허용되는 일시적인 숙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숙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1960년대는 김일성의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되고 더 나아가 김정일 후계구도가 준비되던 중요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간부들이 숙청되었는데, 50년대의 연이은 숙청으로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보다도 많은 간부들이 최고 지도부에서 탈락당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다.

〈표 1〉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위원회 탈락자 비교

| 1950년대 탈락자 명단 | 1960년대 탈락자 명단 |
|---|--|
| 허가이(1951) 박한영, 리승엽(1953) 박일우(1955) 박창욱, 박영빈(1955) 최창익(1956) 김두봉, 박의완(1958) | 림해(1961) 하양천, 김창만(1965) 정일룡(1966) 박금철, 리효순, 박용국, 림춘추(1967) 김창봉, 허봉학, 최광(1969) 김광협, 석산, 리영호, 리종욱, 한상두, 남일, 김익선, 박정애, 최용진, 리국진(1970) |

출처: 이준희(2023)의 내용을 종합 정리, 자연사인 김책, 허헌, 리주연 등은 제외했으며, 숙청이 확실한 인물은 굵은 글씨로 처리했다.

두 번째 특징은, 류길재와 부조의 지적처럼¹⁾ 숙청된 인물들이 김일성의 측근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김일성의 1인 독재와 빨치산들의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비 빨치산들에 대한 숙청이 주로 이루어진 50년대의 투쟁과는 달리, 승리한 빨치산과 그 동맹자들 가운데서 지도부를 새로 재편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비롯하여 50년대의 주요 숙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출간된 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발견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정치사를 다룬 연구들은 제한적인 편이다. 선행연구들은 김일성, 김정일 노작 등 주요 북한 문헌을 비롯한 기존에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충실하고 자세히 해놓은 상태이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선행연구들의 성취는 놀라운 수준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김일성의 생애나 북한 정치사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

1)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제9권 제1호 (2004), Adrian Buzo, *The Guerilla Dynasty: Politics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999).

서 1960년대를 다뤘는데, 김일성의 ‘유일영도체계’ 완성,²⁾ 혹은 북한의 혈통세습 체제의 기반 마련이라는 결과³⁾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자료 부족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인선 변동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선행연구들은,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북한의 공식 문헌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구도만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김일성 외에 주체적인 정치인을 조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이 1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썼는지, 당시 북한 지도부에서 누가 김일성을 왜 지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샬론타이가 지적한 것처럼, 김일성은 혼자서 승리하지 않았으며 그가 승리한 것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김일성이 승리할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⁴⁾

2)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운동사』(파주: 돌베개, 2015); 김학준, 『북한 50년사』(서울: 동아출판사, 1995),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파주: 세종연구소, 2010), 와다 하루끼 저, 남기정 역,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파주: 창비, 2014); 서대숙 저,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표도르 께르치즈스키(이휘성), 『김일성 전기』(파주: 한울아카데미, 2022); 이준희,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3)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김영사, 개정증보판, 2000);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Lim Jae-cheon, *Kim Jong Il's Leadership of North Kore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4) Balazs Szalontai,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Socio-Political System, 1945-1994,” in Adrian Buzo (eds), *Routledge Handbook of Contemporary North Kore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1), p. 31.

또한, 선행연구들이 다른 시간적 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67년 갑산파 사건⁵⁾과 69년 김창봉·허봉학 사건⁶⁾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두 사건에 관련된 점에서 기인하나, 1965년과 1970년에도 별개의 주요 숙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만 집중해서는 1960년대의 변동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60년대 북한 정치사의 전체적 흐름을 김일성 외의 다른 주요 간부들 간의 관계와, 숙청의 수혜집단에 주목하여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서, 김일성이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서 1960년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유일영도체계 확립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전에 활용할 수 없었던 다음의 자료들을 주요 논거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한 소련의 외교문서들과 일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주의권의 외교문서들, 그리고 필자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헝가리의 외교문서들이다.⁷⁾ 여기에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5) 정창현, “1967년 노동당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김정일 연설: 김정일 후계체계의 서막,” 『역사비평』 112 (2015); 조우찬, “북한 갑산파 연구: 기원, 형성, 소멸,”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Fyodor Tertitskiy, “1967: transition to absolute autocracy in North Korea,” in Adam Cathcart, Robert Winstanley-Chesters and Christopher Green (eds), *Change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n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6) 김용현,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 『현대북한연구』 5(1) (2002); 스즈키 마사유키, “북한 인민군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군벌관료주의자 숙청과 비대칭전략 완성,” 『한일공동연구총서』 7 (2004); 고명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18(3) (2015).

7) 헝가리 외교문서들은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발라즈 샬론타이 교수께서 선별하여 제공, 번역해 주셨다. 한편 이휘성 박사도 소장한 문건을 기꺼이 본 저자에게 제공해 주셨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공개되었거나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북한의 내부 문헌들도 주요 소스로 활용했다. 여기에는 『인민들 속에서』,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위대한 한생』을 비롯한 회상실기가 포함되며, 특히 『위대한 한생』은 60년대의 개별 엘리트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영하는 엘리트들의 소개편집물과 기록영화들도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했다.

마지막은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 문건들이다. 특히 의회도서관은 1966년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보집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1966년도의 주요 직책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자료다.

2. 1960년대 전반기(1961-1965)의 숙청

1958년 1차 당대표자회에서 김두봉과 박의완을 숙청한 이후 1965년까지 북한 지도부는 유례없는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표 2〉 1957-1964년 사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구성원 변동.

| | 1957년 년감 | 1958년 년감 | 1959년 년감 |
|----------|---|--|---|
| 위원 |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박정애 김일 박금철 림해 정일룡 김광협 남일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정애 박금철 김창만 정일룡 남일 김광협 림해 리효순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정애 박금철 김창만 정일룡 남일 김광협 리효순 림해 |
| 후보 위원 | 김창만 리종욱 리효순 박의완 | 리종욱 <u>한상두</u> <u>하양천</u> <u>김익선</u> | 리종욱 한상두 하양천 김익선 |
| | 1960년 년감 | 1961-1963년 년감 | 1964년 년감 |
| 위원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정애 박금철 김창만 정일룡 남일 김광협 리효순 림해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박정애 김광협 정일룡 남일 리종욱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김광협 정일룡 남일 리종욱 박정애 <u>리주연</u> |
| 후보 위원 | 리종욱 한상두 하양천 김익선 | 김익선 <u>리주연</u> <u>하양천</u> 한상두 <u>현무광</u> | 김익선 하양천 한상두 현무광 김창봉 박성철 |

출처 『조선중앙년감』 1957-1964. 취소선은 숙청된 인물들이며 밑줄 친 인물들은 승진되었거나 보선된 인물이다.

1961-1965년 사이에 해임된 것은 농업상 림해 한 사람이다. 박병엽⁸⁾은 림해가 1969년 이후 김정일의 부상에 반발해 숙청됐다고

8) 박병엽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지냈다. 귀순 후 신경완, 황일호, 신평길, 서용규 등 다양한 필명을 사용했다. 박병엽 구술, 유영구, 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서울: 선인, 2010), pp. 9-11. 본문에서 인용한 신경완, 황일호 명어의 글은 모두 편의상 박병엽의 주장으로 소개했다.

했지만, 잘못된 증언이다.⁹⁾ 실제로 립해는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에 해임되었다.¹⁰⁾ 립해가 소련으로 망명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적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립해의 숙청 여부는 불분명하다.

1965-1966년 사이는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여 정일룡, 하양천, 김창만이 정치위원회에서 탈락했다. 기술관료인 정일룡은 부수상 재임 중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비판을 받다가¹¹⁾, 1966년 건재공업상으로 강등되었고,¹²⁾ 2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위원회에서 소환되었다. 따라서 정일룡의 해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숙청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북한도 정일룡의 해임은 경제적 실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¹³⁾

하양천과 김창만은 확실히 숙청된 경우이다.¹⁴⁾ 기존 연구들은

9)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 상,” 『월간중앙』 1991년 6월호, p. 403.

10) “Telegram from the Hungarian Embassy in Pyongyang, ‘The Korean Workers’ Party’s 4th Congress,’” September 20, 1961,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NL OL XIX-J-1-j Korea 27a-003632/1961. Obtained by North Korean Materials Archive, IFES, Kyungnam University, and translated by Imre Májer. 샬론타이는 립해가 무역정책의 실패로 해임됐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샬론타이가 립해의 직책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77-178.

11) 이준희(2023), pp. 95-96;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Ⅲ』,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pp. 97-98.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보』(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66) 1966년 4호(루계 제278호), p. 3.

13)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Korea-IU-250-005007/3-1966, 74. doboz. 문서번호의 경우, 최초 인용의 경우에만 표기하였다.

14) “Excerpts from the Report of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Some New Aspects of Korean-Chinese Relations in the First Half of 1965’”, June 4, 1965,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VPRF, fond 0102, opis 21, papka 106, delo 20, listy 14-27.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Sergey Radchenko.

김창만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숙청 이유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⁵⁾ 김창만의 숙청 시점도 명확히 구명되지 않았는데 김창만은 흔히 1966년 초에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¹⁶⁾ 실제로 1965년 말에 이미 숙청된 상황이었으며 해임의 비준만 2차 당대표자회에서 이루어졌다.¹⁷⁾ 1965년 초에 숙청된 하양천은 전문 분야도 잘못 알려져 대남정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있으나,¹⁸⁾ 하양천은 교육 전문가다.¹⁹⁾

우선 김창만은 선행연구에서 평가절하한 것과 달리 김일성 정권 초기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김일성의 사상사업, 반소 정책, 숙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²⁰⁾ 이 때문에 사회주의 권 외교관들은 김창만을 북한의 정책을 결정하는 7인방(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김창만) 중 한 명으로 간주하였다.²¹⁾ 마이어스는 그를 주체사상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²²⁾ 따라서 김창만의 숙청은 북한 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김창만은 왜 숙청됐을까? 부정부패로 숙청당했다는

15) 서대숙(1989), pp. 148, 150-151; 김학준(1995), pp. 221-222; 백학순(2010), p. 228.

16) 『북한인물록』(서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9), p. 441;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2015), p. 903; 와다 하루끼(2014), p. 164.

17)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이에 따르면 김창만은 지방인민위원장으로 강등됐다.

18) 와다 하루끼(2014), p. 164.

19) 『북한관계사료집 79』(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6), p. 458.

20)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I』,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pp. 62-69;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266; 『북한관계사료집 7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5), pp. 291-293; 『북한관계사료집 7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p. 416.

21)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22) B.R. Myers, *North Korea's Juche Myth* (Busan: Sthele Press, 2015), p. 95.

주장이 유명하긴 하나,²³⁾ 본질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상투적인 비난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에도 의심이 간다.²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북중관계의 악화로 친중파인 김창만과 하양천이 숙청됐다는 것이다.²⁵⁾ 1964년 이후 북중관계는 악화되고 반대로 북소관계는 개선되었다.²⁶⁾ 김창만은 유명한 반소주의자였으며, 중국 사상이 북한에 유입되는 직접적인 창구로 지목되었다.²⁷⁾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창만이 반소 이념을 전파한 죄로 숙청됐다고 헝가리에 통보했다.²⁸⁾ 김창만, 하양천과 함께 문화상 박영걸도 같은 혐의로 해임되어 월북 배우 박영신으로 교체되었다.²⁹⁾

그런데 북중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하게 만든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김창만과 하양천이 숙청된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본 연구에서는 김창만의 몰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은 북한 지도부 안의 균열이라고 주장한다.³⁰⁾ 동구권 외교문서를 보면 중소분쟁 시기 북한 지도부가 친중 노선과 반중 노선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가령 동독의 정보에 따르면 1961년에는 민족보위상을 친중파인 김광협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이

23)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2015), p. 903;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하)』(서울: 현장문학사, 1990), p. 44; 『위대한 한생: 당기발아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 342-343;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I』, p. 61.

24) 장학봉 외(2006), p. 277.

25) 서대숙(1989), p. 193; 이종석(1995), p. 299.

26) 선즈화 저, 김동길, 김민철, 김규범 역, 『최후의 천조』(서울: 선인, 2017), pp. 776-788; 김보미,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54(3) (2014), pp. 228-231; 백학순(2010), pp. 591-593.

27)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I』, pp. 59-61.

28)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29) 『로동신문』 (1966/10/03).

30) 마이어드 김창만은 갑산파의 공격으로 숙청됐다고 추정한다. Myers(2015), p. 95.

벌어졌으며,³¹⁾ 소련의 정보에 따르면 친소파로 평가되는 박금철과³²⁾ 김창만 사이에서 2인자 자리를 놓고 알력이 벌어졌다.³³⁾ 결국, 김일성의 지지를 얻은 박금철이 김창만을 몰아냈으며, 김창만의 몰락 이후 박금철은 김창만이 맡고 있던 사상문화 분야를 장악했다.³⁴⁾ 김창만이 가지고 있던 부수상 자리에도 소련 유학을 다녀온 문화예술부장 출신의 고혁이 임명되었다.³⁵⁾ 결과적으로 1965년의 변동은 1차 당대표자회 이후 유지되던 오랜 안정의 붕괴의 서막이었다. 최초로 50년대의 ‘종파투쟁’에서 김일성과 함께 싸워 온 핵심 동지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북한 지도부 내의 숙청은 더욱 과격화된다.

31) “Note about a Dinner with the Ambassador of Bulgaria”, December 21, 1961,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SAPMO-BA, DY 30, IV 2/20/136. Translat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32)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Ⅱ』, p. 82; 『당기발아래』, pp. 34-35.

33)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Ⅱ』, p. 69.

34)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Ⅱ』, pp. 59-60;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35) 『로동신문』(1966/10/03).

3. 2차 당대표자회와 갑산파 사건(1966-1967)

가. 2차 당대표자회(1966.10)의 분석

19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를 기점으로 조선로동당 지도체계는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을 조직하고 총비서 직제를 두었다.³⁶⁾ 일반적으로 총비서 직제의 도입과 비서국 설치의 유일영도체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³⁷⁾ 북한은 대외적으로 소련 및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³⁸⁾ 이는 1966년 4월, 소련공산당 23차 대회에서 서기장-정치국 체제가 복구된 것과³⁹⁾ 보조를 맞춘 것이다.

여기서 2차 당대표자회의 인선 변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차 당대표자회 공보는 ‘보선’된 명단만 발표했고 지위에 변동이 없는 인물들은 명단에 수록하지 않았는데 선행연구들은 공보를 전체 명단으로 오해함으로 수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해임됐다고 오해했다.⁴⁰⁾ 해임되지 않은 기존의 정치위원을 포함한 1966년 10월 시점의 정치위원회 정원은 총 26명이다.⁴¹⁾ 또한, 직책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가령 리영호는 최고인민회

36) 『로동신문』(1966/10/13).

37) 이종석(1995), pp. 297-298; 백학순(2010), p. 594.

38)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39) Graeme Gill, *The Rule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226.

40) 이준희(2023), pp. 103-104.

41) 1970년 11월 4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 Korea, 1970, 55th doboz (box), 81-25, 002263/5/1970.

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⁴²⁾ 2차 당대표자회 시점의 정치위원회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구성(1966.10)

| 직책 | 성명 |
|----------------|--|
| 상무위원 (6인) | 김일성(총비서 겸 내각수상), 최용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장 겸 당비서), 김일(제1부수상 겸 당비서), 박금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비서), 리효순(대남비서 겸 대남총국장), 김광협(부수상 겸 당비서) |
| 정위원 (6인+9인) | 남일(부수상 겸 철도상), 리종욱(부수상), 박정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주연(부수상), 최현(당 군사부장), 김창봉(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박성철(부수상 겸 외무상), 김익선(국가검열상), 리영호(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 후보위원 (11인) | 석산(사회안전상 겸 당비서), 허봉학(총정치국장 겸 당비서), 김영주(당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박용국(국제비서 겸 국제부장), 한상두(재정상), 현무광(기계공업상), 최광(총참모장), 오진우(민족보위성 부상), 림춘추(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겸 대남총국 부총국장), 김동규(평양시 책임비서), 정경복 |

※ 서열은 1967년 리봉수 국가장의위원회 구성을 기준으로 하였다(로동신문 1967/03/13).
밑줄 친 인물은 승진, 볼드체는 신규 진입이다.

당대표자회에서 주요 변화를 정리하자면, 1. 기구 개편, 2. 정치위원회의 팽창, 3. 정치위원회의 군사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헝가리에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집단지도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연구 방향과 반대되는 설명이나, 비서국의 수장이란 뜻인 당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전당의 수장인 당중앙위원회 위원장보다 권위가 낮은 직함이라는 점에서⁴³⁾ 북한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곧 설명하겠지만, 김일성은 갑산파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따라서 갑산파를 안심시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보』(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66) 1966년 5-6월호(루계 279호), p. 3.

43)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서울: 민음사, 2019), pp. 356-358. 류현우,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서울: 동아일보사, 2025), p. 137.

기 위해서 표면상 자신의 권위를 후퇴시키고, 핵심 동맹자들인 6인방의 권위를 승격시켜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헝가리 측도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당을 움직이던 6인방에게 상무위원이라는 직함을 부여함으로써 기구화한 것이며, 비서국의 창설에 대해서도 당 정책을 움직이던 부장들의 부장협의회를 기구화한 것으로 보았다.⁴⁴⁾ 정치위원회가 확대된 이상 상무위원회 설치로, 그 안에서 누가 실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을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정치위원회의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팽창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선거된 정치위원회는 4차 당대회와 정확히 같은 규모로 줄어들었다. 즉 2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위원회의 급격한 팽창은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그 목적은 갑산파를 숙청시키기 위해 김일성 세력들을 정치위원회 안에 영입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스탈린이 1952년 19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심 실세였던 바체슬라프 몰로토프와 아나스타스 미코얀을 숙청하기에 앞서 정치국을 간부회로 개편하여 그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간부회 안에 핵심 엘리트로 구성된 ‘뷰로’를 설치한 것과 유사한 조치이다.⁴⁵⁾

마지막 특징은 정치위원회의 군사화이다. 팽창된 정치위원회에 누가 영입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새로 영입된 정치위원들의 상당수는 빨치산 출신의 군부와 사회안전기관 간부, 혹은 전직 군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현상은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군사주의 강화와⁴⁶⁾ 빨치산 세력의 성장으로 설명된다.⁴⁷⁾ 이 역시 일리는 있

44)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45) E.A. Rees, “Stalin as Leader, 1937-1953: From Dictator to Despot,” in E.A. Rees (eds), *The Nature of Stalin's Dictatorship: The Politburo, 1924-1953* (Palgrave Macmillan, 2004), pp. 226-228.

46) 와다 하루끼(2014), pp. 158-159; 김보미(2014), pp. 219-224, 231-234.

47) 김용현(2002), pp. 132-140.

으나, 정치위원회의 군사화 역시 5차 당대회에선 해소된 일시적인 현상이며, 4대 군사노선과 대남강경책을 지지한 군부와 대남유화 정책 및 경제노선 완화를 지지한 갑산파 간의 불화가 존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갑산파와 사이가 좋지 않고, 자신과 유대감이 더 강력한 빨치산들을 영입함으로써 갑산파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제로 소련의 정보에 따르면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장군들의 공격에 리효순은 중과부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⁴⁸⁾ 갑산파의 실각 이후 군부강경파는 대남정책을 위임받음으로 보상을 받았다. 즉 자파 세력 영입이란 목적을 위해 김일성이 선택한 구체적 조치는 정치위원회의 군사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영주, 최광 등 김일성의 친척들이 정치위원회에 진입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⁴⁹⁾

나. 갑산파 사건(1967.5)의 재구성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2차 당대표자회는 갑산파를 제거하기에 앞서 김일성이 자신의 친위 세력을 강화한 자리였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갑산파가 강력했고,⁵⁰⁾ 따라서 제거해야 할 인물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 안에서 한정하여 박금철, 리효순, 림춘추, 박용국이 제거되었고 그 외에 선전선동비서 김도만, 부수상 고혁, 과학교육부장 허석선, 검사총장 리송운, 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김왈룡, 고등교육상 김종항이 숙청되고 보통교육상 윤기복은 해임되어 재정상으로 이동됐다.

48)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Ⅱ』, p. 183;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Ⅲ』, pp. 214-215.

49) 선즈화(2017), pp. 874-875.

50) 조우찬(2016), pp. 217-227; 김진계(1990), pp. 78-81; 『당기발아래』, pp. 40-47.

그렇다면 왜 김일성은 갑산파를 제거해야 했을까? 정책대립설이 일반적으로 제시되지만, 류길재의 지적처럼 정책적 대립은 갑산파 사건의 본질이라기보단, 배경을 설명하는 정도이며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⁵¹⁾ 숙청에서 정책적 대립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이 핵심 동기라는 토리지안의 지적도 상기해야 한다.⁵²⁾ 그리고 제거된 인물들을 일률적으로 ‘갑산파’로 묶기 어려운 점도 유념해야 한다.⁵³⁾ 박용국, 김도만은 김영주의 측근이었으며,⁵⁴⁾ 립춘추는 빨치산이고,⁵⁵⁾ 김종항도 김일성의 친구로, 6.25전쟁 시기에 김일성의 비서로 사업했다.⁵⁶⁾ 따라서 갑산파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갑산파’라는 단일한 조직을 상대로 한 파벌 대 파벌의 싸움, 정책 대 정책의 싸움이라고 보긴 힘들다. 다만 서술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이후에도 갑산파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설명은,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의 부상 에 위기감을 느낀 갑산파가 지위 보전을 위하여⁵⁷⁾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⁸⁾ 그런데 최근, 문미라와 류승

51) 류길재(2004), p. 79.

52) Joseph Torigian, ““You Don’t Know Khrushchev Well” The Ouster of the Soviet Leader as a Challenge to Recent Scholarship on Authoritarian Politics,”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24, No. 1 (2022).

53) 와다 하루끼(2014), pp. 164-165; 조우찬(2016), pp. 128-131.

54)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서울: 시대정신, 2006), pp. 207-208;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Ⅲ』, pp. 81, 86.

55) 다만 박병엽은 립춘추가 빨치산 직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총국장이었던 신대식에 비해서 편애에 가까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신경완(1991), p. 398. 하지만 립춘추가 다시 정치위원회에 복귀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타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56)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Ⅲ』, p. 70. 김종항은 이후 최종적으로 복권되어 1990년에 조국통일상이 추서되었으며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었다.

57) 정창현(2000), pp. 99-100.

58) 조우찬(2016), pp. 178-190; 『당기발아래』, pp. 48, 99-100.

주의 연구는⁵⁹⁾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혁명전통 다원화 혐의는 나중에야 등장했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갑산파 사건 직전까지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는 감소했으며,⁶⁰⁾ 이는 동유럽 외교관들에게도 관찰되었다.⁶¹⁾ 그리고 숙청자들이 대부분 문화, 교육 부문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북한에서 제시한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 혐의가 근거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⁶²⁾

그럼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혐의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이들의 지적은 큰 가치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만약 갑산파가 구체적인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면, 갑산파 사건에 대한 해석 역시, 갑산파의 ‘공세’에 대한 김일성의 반격이라기보단, 김일성이 일편단심 문제 등을 침소봉대하여 갑산파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달라져야 한다.⁶³⁾

분명한 것은, 갑산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은 북한의 교육, 문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더욱 철저한 통제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을 비롯한 역사적 위인들도 격하되었다.⁶⁴⁾ 이것으로 북한은 브라운리가 제시한, 현대 권위주의 국가의

59) 문미라, “북한의 갑산파 숙청과 ‘혁명전통’의 굴절,” 『역사비평』 139(2022); 류승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갑산파 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형성에 관한 재고,” 『역사비평』 152(2025).

60) 백학순(2010), pp. 588-590.

61)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76.203, TOP SECRET, June 13, 1967,” June 13, 196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rchive of the Roma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Eliza Gheorghe.

62) 마이어스는 1960년대 중반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저작이 아닌, 북한 지도부 전체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한다. Myers(2015), pp. 94-95.

63) 1965년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해서파관 사건을 구실로 문예부문에 관여한 평전, 루딩이 등 주요간부들을 숙청하고 더 나아가 후계자 류사오치를 제거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영남(2019), pp. 177-191.

64) 『인민들 속에서(4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p. 44-45.

세습 조건인 지도자가 당을 앞서는 것을 정확히 충족시키게 되었다.⁶⁵⁾ 갑산과 사건으로 북한에서 김일성 외에 혁명의 정통성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김일성 이전 당의 전통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다. 전면적 세대교체의 시작

한편 갑산과 사건을 전후로 한 큰 변화 중 하나는 북한 엘리트 집단의 전면적 세대교체이며⁶⁶⁾ 그 과정에서 혁명가 유자녀 집단이 전면에서 등장한 것이다.⁶⁷⁾ 만주 항일전쟁, 해방 초에서 6.25전쟁 때 사망한 빨치산과 혁명가들의 유자녀들로 만경대혁명학원, 친위중대 경험을 통해 집단화되었으며, 빨치산 1세대와는 달리 대학 교육, 해외 유학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정권 수립 이후에도 건재했던 빨치산의 자녀 중 김일의 아들 박용석을 제외하면 이 시기에 활약한 경우가 드물며, 김일성을 아버지로 대신 따를 유자녀들이 주를 이루었다.⁶⁸⁾ 이들은 김일성을 일관되게 지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박용석, 최영림, 김국태 등은 모두 갑산과 사건 및 김창봉·허봉학 사건에서 활약했다.⁶⁹⁾ 북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뒤에 살펴볼 김창봉·허봉학 사건에 대응 못한 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현철해도 오히려 이들에 맞서

65)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ume 59, Number 4 (2007), pp. 612-618.

66) 『당기발아래』, p. 232.

67) 갑산과 사건과 빨치산 2세대의 등장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정창현이 김정일 후계 구도 등장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으나, 정창현은 빨치산 2세대들이 어떻게 김정일을 돕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진 않았다. 정창현(2015), pp. 139-140.

68) 유자녀 정책에 관련한 북한의 최신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조홍림, "혁명가 유자녀들을 핵심골간후비로 키워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조선로동당특유의 계승위업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71(1) (2025).

69) 『당기발아래』, pp. 184-185, 363; 『로동신문』(2013/12/15).

투쟁했다.⁷⁰⁾

친척 출신 간부들도 김일성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었다. 김영주와 김정일 외에 김일성의 사촌인 강현수, 김일성의 사촌 매제인 허담도 갑산파와 대립했으며,⁷¹⁾ 김창봉·허봉학 사건 때는 김일성

의 외가 친척인⁷²⁾ 리용무가 이들을 고발하였다.⁷³⁾ 이들은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 수립과 빨치산의 혁명전통 독점에 있어 최대 수혜자들이었으며, 김일성 체제를 지킬 동기가 충분했다. 때문에 이들은 김일성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으며, 반대로 김일성의 적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근래 북한 문헌에서는 흥미로운 묘사가 보이는데, 가령 김도만은 만경대-친위중대 출신 간부들을 보면서 ‘그쪽 사람들’이라면서 깔끄러워했으며, 박용국은 최영림을 외국 대사관으로 전보시키려고 했다고 한다.⁷⁴⁾

그리고 김일성은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갑산파 사건을 전후로 하여 김일성은 혁명가 유자녀들을 중앙과 지방에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이 시기에 등용된 대표적 유자녀 출신 간부 리길송은 김일성이 1967년을 기해서 만경대 졸업생들을 소집해 중앙과 지방의 주요 직무에 배치하여 육성하던 일화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⁷⁵⁾ 김일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자녀들을 배치했다. 앞서 살펴본 김국태, 현철해, 박용석은 모두 군 출신이 아니지만⁷⁶⁾ 총정치국에 배치되었다.

70) 『조선중앙텔레비죤』(2022/06/12).

71) 『당기발아래』, pp. 47, 55-57.

72)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보사, 1995), p. 67.

73) 황일호(1993), p. 645.

74) 『당기발아래』, pp. 185, 336.

75) 리길송, 『혁명의 2세를 안아키우시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92-96.

76) 『조선중앙통신』(2013/12/14); 『조선중앙통신』(2022/05/20); 『당기발아래』, pp. 362-363.

이러한 유자녀 집단의 전략적 배치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지방당이였다. 1967년부터 1972년 사이, 평양시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에 빨치산 2세 출신 간부들이 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되었다. 숙청당한 갑산파 세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방에 남아있는 상황에서⁷⁷⁾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유자녀들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방주의를 일소하게 하였다.⁷⁸⁾ 이들의 임명이 단순한 능력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이란 것은 이들이 관련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임명되었음을 인정하는 여러 북한 문헌에서도 확인된다.⁷⁹⁾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유자녀들은 배제되었는데, 가령 안길의 아들 안영환은 건강이 나빠 총정치국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자⁸⁰⁾ 곧 해임되었다.

〈표 4〉 1960년대 후반 빨치산 유자녀들의 도당 책임비서 임명 현황

| | | | |
|------------------------|-----------|-----------|-----------|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황해북도 | 함경남도 |
| 리길송(1968) | 김병률(1969) | 림형구(1968) | 림수만(1967) |
| 자강도 | 량강도 | 황해남도 | 함경북도 |
| 리봉길(1967) 강성산(1969) | 리길송(1972) | 백범수(1968) | 리동춘(1969) |

출처: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자료를 종합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77) 1969년 중국으로 탈출하던 중 갑산에서 적위대원에게 체포된 려정은 박금철이 숙청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금철의 고향 사람들이라 경각성이 높다고 칭찬하는 도박을 했고, 이들의 호의를 사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려정, 『불계 물든 대동강』(서울: 동아일보사, 1991), pp. 332-335.

78) 리길송(1993), pp. 122-133.

79) 『조선중앙텔레비죤』(2025/09/11); 리길송(1993), p. 104.

80)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p. 166-181

4. 5차 당대회 전후의 재편(1968-1970)

가. 김창봉·허봉학 사건(1969.1)

1969년 1월에 김창봉·허봉학 사건, 혹은 군벌관료주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비서 허봉학, 총참모장 최광이 숙청됐다. 이미 빨치산들이 확고히 장악하고 있던 군부를 상대로 한 숙청인 관계로 피해자는 모두 빨치산과 그 관계자들이었으며, 김일성 직계의 최광을 비롯하여 김일성이 양자로 삼은 김책의 아들 김정태를⁸¹⁾ 비롯하여 김일성과 친밀한 인물들도 숙청되었다. 여러 문건을 종합하면 김철만, 김정태, 유창권, 김양춘, 최민철, 정병갑이 비판되었다.⁸²⁾ 흥미로운 점은 림춘추, 김종항 등 극히 일부만이 복권될 수 있었던 갑산파 사건과 달리 김창봉·허봉학 사건에선 김철만, 최광, 김정태, 김양춘, 최민철이 복권되고 김국태는 처음부터 처벌받지 않았다. 숙청의 대상이 김일성의 권력 기반인 빨치산 세력이니만큼, 숙청은 더욱 정교해야 했을 것이다.

북한은 소련과 한국에 각각 이들이 친중파라서,⁸³⁾ 좌경맹동주의라서 숙청됐다고 주장했으나,⁸⁴⁾ 본질적인 설명은 아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내부 설명은 이들이 군을 특수화하고 당군 연계를 약화

81) “Col. Mieczysław Białyek, ‘Record of Conversation conducted by Col. Białyek with USSR Military Attaché Col. Latishev’”, April 28, 196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IPN, 2602/8420. Obtained by Marek Hańderek and translated by Jerzy Giebułtowski.

82) 『북괴군사전략자료집』(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pp. 327-341; 신경완(1991), p. 401.

83)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Ⅲ』, p. 210.

84)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서울: 폴리티쿠스, 2012), pp. 354-355.

시킨 ‘군별관료주의자’라는 것이다.⁸⁵⁾ 박병엽은 이들이 말한 ‘군의 특수화’가 이들이 남한을 정복하여 공을 세움으로 부상하던 김영주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려던 음모였다고 설명한다.⁸⁶⁾ 고명균은 아무리 군이 특수화되었다고 하지만 군부의 월권적 일탈행위가 불가능했다고 지적, 김일성의 군사모험주의 전략 폐기와 책임추궁의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⁸⁷⁾ 분명한 것은 김일성은 군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항적인 군 지도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갑산과 사건 때와 달리 지도부를 미리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거나, 군부 지휘관들을 교체하는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김창봉·허봉학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서 그들이 빨치산 집단 안에서 이미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들은 난폭한 태도로 부하들을 다루었으며, 빨치산 선배들이 무식하다고 모욕했다고 한다.⁸⁸⁾ 이러한 태도는 김일, 오백룡 등 다른 빨치산들이⁸⁹⁾ 그들의 숙청에 기꺼이 동참한 것을 설명해준다. 김일성에게 있어,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은 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 덕분에 당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활용하여 김창봉·허봉학 등 군부 실력자들을 ‘군벌’로 격하함으로써 이들의 반항할 명분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는 니키타 흐루쇼프가 국방상 게오르기 주코프를, 흐루쇼프 자신의 집권에 공이 큰 인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하여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1957년

8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전기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23), pp. 319-321.

86) 황일호, “68년부터 추진했던 「제2의 6.25」 작전,” 『월간중앙』 1993년 4월호, pp. 632-644.

87) 고명균(2015), pp. 47-50.

88) 김진계(1990), pp. 139-140; 『조선중앙텔레비죤』(2016/08/21).

89) 신경완(1991), pp. 401-402.

10월 전원회의에서 그와 원한이 있는 장군들을 동원하여 당군연계를 약화한 혐의를 물어 기습적으로 숙청한 것과 유사하다.⁹⁰⁾ 두 사람의 숙청을 계기로 정치위원제가 실시되고 최현, 오진우 등 김일성 직계가 군권을 장악하면서 김일성의 군 통제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더 나아가 김정일 승계에도 유리한 배경이 조성되었다.⁹¹⁾

나. 1970년 숙청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1970년에도 김광협, 석산, 리종옥, 리영호, 한상두 등이 제거되는 대규모 숙청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 문헌들은 박병엽을 인용하여 김광협, 석산, 리영호가 김창봉·허봉학과 함께 숙청됐다고 잘못 쓰고 있으나 박병엽은 김광협, 리영호, 석산이 나중에 숙청됐다고 증언했다.⁹²⁾ 박병엽의 증언을 활용하기 이전 1970년대의 국내 자료들은 이들이 1970년에 숙청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다.⁹³⁾

우선 리종옥은 1970년 7월, 4기 21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비판을 받고 해임되었다.⁹⁴⁾ 뒤에서 살펴볼 것이나 김용규는 그가 김광협이 후임 수상을 노린 사건에 휘말려서 숙청됐다고 증언했으나, 리종옥은 불과 몇 년 후에 지도부로 복귀하였고 이후 총리를 거쳐 부주석까지 지내는 등 북한의 핵심 간부로 남았다는 점에서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들, 그의 연루 수준은 낮았을 것이다.

리영호의 경우, 박병엽은 리영호가 김일성 권력 독점에 반항하

90) Geoffrey Roberts, *Stalin's General: The Life of Georgy Zhukov* (New York: Random House, 2012), pp. 281-289.

91) 고명균(2015), pp. 38-46.

92) 신경완(1991), pp. 402-403.

93) 『북한인물록』, pp. 437, 447, 450, 459; 『북괴숙청사』(서울: 내외문제연구소, 1975), pp. 71-72.

94) 『로동신문』(2005/07/15); 『조선중앙텔레비죤』(2016/11/11).

다가 숙청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영호의 정치적 복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는 의문스러운 주장이다. 과거 국내 문헌에서는 은퇴한 것이라는 주장과 군사노선에 반발하다가 토사구팽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⁹⁵⁾ 하지만 이는 냉전기의 정치적인 서술에 가까우며 출처 제시도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리영호는 최용건계의 제2로군 7군 출신으로 김일성 직계가 아니다. 따라서 김용현의 지적처럼 김일성이 직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축출된 것으로 생각된다.⁹⁶⁾

한편 김광협, 석산, 한상두는 현재까지 북한에서 역적으로 간주하면서 저작물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등⁹⁷⁾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로 김일성 후계문제로 숙청됐을 가능성이 높다.⁹⁸⁾ 김용규는 1969년, 김일성이 수술을 받는 동안 김광협이 다음 수상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석산, 리종옥과 함께 숙청됐다고 주장했다.⁹⁹⁾ 이 주장은 북한의 선전으로도 뒷받침되는데 북한은 김광협이 김일성이 와병한 틈을 타서 후계를 노린 야심가였다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를 당의 배반자로 규정한다.¹⁰⁰⁾ 앞서 본 김창봉, 허봉학과 마찬가지로 김광협 역시 다른 빨치산 원로들과 불화를 빚었다고 하는데,¹⁰¹⁾ 김일성이 다른 빨치산들을 동원해 그를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95) 『북괴숙청사』, p. 72.

96) 김용현(2002), p. 151.

97) 삭제 예시는 다음을 참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8)』(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재판: 1968), pp. 69-86; 『김일성 선집(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321, 471-472.

98) 려정도 이들이 김정일과 불화를 빚었던 주장을 소개했다. 려정(1991), p. 241.

99) 김용규, 『시효인간』(서울: 나라기획, 1978), pp. 278-279.

100) 『위대한 한생: 조선아 너를 빛내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pp. 239-241; 『당기발아래』, p. 26.

101) 『당기발아래』, p. 26; 『조선아 너를 빛내리』, p. 240.

또한, 이들의 제거는 적절한 직무이동이 선행되었기에 수월했을 것이다. 김광협은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으로 한때 군부 최고 실력자였으나 내각으로 이동하면서 군내 영향력을 상실했다. 석산은 사회안전상 겸 당비서로公安 部門의 실력자였으나, 철도상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¹⁰²⁾ 한상두는 조직 문제의 실력자였으나 공업과 재정 부문에서 사업한 지 오래되어 리종옥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기술관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한해에만 3명의 부수상을 포함한 5명의 정치위원을 단숨에 숙청한 것은 김일성의 힘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한 해에 1-2명만 숙청했으며, 1967년 갑산과 사건 전에는 2차 당대표자회로 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준비를 갖춰야 했다. 하지만 갑산과 사건 이후 그런 수고는 불필요해졌다. 그는 이제 사회주의 우방국에 정적 숙청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으며, 헝가리 외교관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5차 당대회 주석단에 김광협과 석산, 리영호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다.¹⁰³⁾

다. 5차 당대회(1970.11)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5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비빨치산 출신으로 정치위원회에 남아있던 김익선, 박정애, 남일은 이때 정치위원회에서 탈락하였다. 이 중에서 남일은 중앙위원회에 재선, 부수

102) 1969년 6월 4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 Korea-1-002219/1-1969 (60.d). 스탈린도 내무인민위원 니콜라이 예조프를 숙청하기 앞서 그를 수운인민위원회로 보냈다. Marc Jansen and Nikita Petrov, *Stalin's Loyal Executioner: People's Commissar Nikolai Ezhov, 1895-1940*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2002), p. 140.

103) 1970년 11월 4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상에 유입되었으니 명백히 숙청이 아니다. 하지만 박정애와 김익선은 중앙위원에서 탈락,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박정애와 김익선이 갑산과 사건을 전후로 숙청됐다는 박병엽의 증언은¹⁰⁴⁾ 오류로, 두 사람은 5차 당대회 집행부에도 선출됐다.¹⁰⁵⁾ 하지만 두 사람이 숙청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5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빨치산들이 사실상 종신적 임기를 누리는 가운데¹⁰⁶⁾ 이들만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출된 것도 석연치 않거니와, 1971년 10월, 조총련에서 출판한 5차 당대회 기념 화보집에서 박정애와 김익선의 사진이 삭제하여 두 사람이 숙청됐음을 암시했다. 두 사람이 김일성보다 고령이며, 특히 박정애란 여성이란 점에서, 김일성의 후계문제에 연루되었다기보다는, 빨치산들의 권력 독점 과정에서 축출됐을 가능성이 높는데,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 친위 세력이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¹⁰⁷⁾

〈그림 1〉 5차 당대회 주석단 보도 사진 비교



로동신문에 실렸던 주석단 사진(左)과 11개월 후 조총련에서 발행한 화보집에 실린 주석단 사진(右)의 비교. 정준택 부수상 옆에 앉아있던 박정애가 삭제되어 있다.

104) 신경완(1991), pp. 398-399.

105) 『로동신문』(1970/11/03).

106) Buzo(1999), p. 84.

107) 박정애의 숙청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김성애가 배후로 지목된다. 김용규(1978), pp. 234-235; 성혜랑,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pp. 322-325. 박정애의 경우 최종적으로 복권되어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었다.

〈표 5〉에 나와 있듯이 5차 당대회 선거 결과는 빨치산과 김일성 일가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했다.

〈표 5〉 조선로동당 3, 4, 5차 대회 정치위원회 선거 결과 비교

| | 3차(1956) | 4차(1961) | 5차(1970) |
|----|-------------|-------------|------------------|
| 정 | 김일성(빨치산) | 김일성(빨치산) | 김일성(빨치산) |
| | 김두봉(연안계) | 최용건(빨치산) | 최용건(빨치산) |
| | 최용건(빨치산) | 김일(빨치산) | 김일(빨치산) |
| | 박정애(소련계 국내) | 박금철(갑산파) | 박성철(빨치산) |
| | 김일(빨치산) | 김창만(연안계) | 최현(빨치산) |
| | 박금철(갑산파) | 리효순(갑산파) | 김영주(친척) |
| | 림해(범 빨치산) | 박정애(소련계 국내) | 오진우(빨치산) |
| | 최창익(연안계) | 김광협(빨치산) | 김동규(빨치산, 친척?108) |
| | 정일룡(기술관료) | 정일룡(기술관료) | 서철(빨치산) |
| | 김광협(빨치산) | 남일(고려인) | 김중린(친척)109) |
| | 남일(고려인) | 리종옥(기술관료) | 한익수(빨치산) |
| 후보 | 김창만(연안계) | 김익선(국내) | 현무광(기술관료) |
| | 리종옥(기술관료) | 리주연(기술관료) | 정준택(기술관료) |
| | 리효순(갑산파) | 하양천(연안계) | 양형섭(친척) |
| | 박익완(고려인) | 한상두(국내) | 김만금(기술관료) |

출처: 「로동신문」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5차 당대회 시점에서는 정치위원회 정위원 전원이 빨치산과 그 친척으로 구성되었다. 후보위원 중에는 김일성의 사촌 매제인 양형섭이 당비서 자격으로 들어옴으로 사상 분야의 개인화를 상징하였으며,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일제 치하에서 기술자로 일한 경력으로 인하여 김일성에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관료들이었으며 이들 모두 일찍이 김일성의 충성파들로 유명한 인물이었다.¹¹⁰⁾

108) 1970년 11월 4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109) 황일호, “北韓의 4·19와 5·16 誤判 전모,” 『월간중앙』 1991년 9월호, p. 230.

110) 이준희(2023), pp. 94-95, 109, 114; 김현식,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파주: 김영사 2007), pp. 229-230.

새로 진입한 빨치산들도 모두 김일성의 직계 충성파들이었다. 최현, 박성철, 오진우, 서철은 모두 제1로군 출신이며¹¹¹⁾ 한익수는 6.25전쟁 시기 김일성의 친위중대를 이끌었다.¹¹²⁾ 특히 최현과 오진우는 김정일 승계도 적극 지지했다.¹¹³⁾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직책들도 김일성 친위세력이 장악함으로 김일성 친위체제가 확고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 1960년대 후반 당·정·군의 주요 직책 변동 정리

| | |
|---|--|
| 당 | 국제비서: 박용국 → 김동규(1967, 빨치산) 선전선동비서: 김도만 → 리국진(1967.6 빨치산) 대남비서: 리호순 → 허봉학(1967) → 김중린(1969.2 친척) 과학교육비서: 양형섭(1970, 친척) 군사부장: 오백룡(1969, 빨치산) 선전선동부장: 김도만 → 리국진 → 김국태(1968, 빨치산 2세) 당중앙검열위원장: 김익선 → 김려중(1966, 빨치산) 평양시 책임비서: 리송운 → 김동규(1966, 빨치산) → 김지혁(1968, 빨치산) → 강성산(1969, 빨치산 2세) 직총 중앙위원장: 김알룡 → 전창철(1967, 빨치산) |
| 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 서철(1969, 빨치산, 당비서 겸임) 제2부수상(신설): 박성철(1970, 빨치산) 외무상: 박성철 → 허담(1970, 친척) 검사총장: 리송운 → 유태홍(1967, 빨치산) 최고재판소장: 리국진(1966) → 리용구(1967, 빨치산) ¹¹⁴⁾ |
| 군 | 민족보위상: 김창봉 → 최현(1969, 빨치산) 총참모장: 최광 → 오진우(빨치산, 당비서 겸임) 제1부총참모장: 김철만(1970, 빨치산) 총정치국장: 허봉학 → 오진우(1967, 빨치산) → 안영환(1969, 빨치산 2세) → 한익수(1970, 빨치산) 사회안전상: 석산 → 김병하(1968, 친척) |

출처: 이준희(2023), 『조선대백과사전』, 『로동신문』을 종합하여 필자가 정리.

111) 서대숙(1989); 와다 하루끼 저,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비평가, 1992).

112) 『조선중앙텔레비죤』(2025/09/29).

11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전기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24), p. 18.

114) 리용구의 임명은 대표적인 보은성 인사이다. 그는 김일성의 만주 항일 투쟁 당시, 아내 고현숙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림춘추의 아들 림영일, 리봉수의 아들 리주호 등 빨치산 자녀들을 키웠는데, 해방 후 조선혁명박물관 부관장으로 사업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1967년 12월, 최고재판소 소장에 임명되어 1970년 2월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다. 『조선중앙텔레비죤』(2025/08/15).

김일성 친위체제의 완성과 더불어 김일성은 더욱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갑산파 사건 이후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리국진¹¹⁵⁾, 최용진¹¹⁶⁾ 등 비직계 빨치산들을 임시로 등용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건강 문제가 있었으며, 김일성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김일성에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모두 5차 당대회 이후 퇴출되었다. 측근들의 파격 승진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1969년 6월에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김중린과 한익수는 불과 다음 해에 열린 5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으로 승진했다. 이전에 김일성 본인이 인정하였듯이 ‘나라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¹¹⁷⁾ 정치위원회 위원들을 임의로 인선하고 금방 퇴출하고, 정치적 신인들을 급격히 승진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동등하였던 7인방이 통치하였던 1960년대 전반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7인방 중 김일성을 제외한 유일한 생존자들이며, 김일성보다 고령이었던 최용건과 김일의 경우, 급격한 노쇠로 인해서 집무가 어려워져서 상징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차차 정치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그들을 대신하여 젊은 세대인 오진우와 김동규가 빨치산 집단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¹¹⁸⁾ 즉 60년대 후반은 빨치산 중심의 권력 재편임과 동시에 빨치산 내부에서도 김일성의 직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김정일 후계 구도가 구축되는 70년대에도 이어져 진행된다.

115)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Ⅲ』, pp. 225-227.

116) 『로동신문』(2002/09/06).

117) 『북한관계사료집 73』, p. 421.

118)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pp. 148-150, 291; 1973년 10월 31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 Korea, 1973, 69.d, 81-22. 001450/9/1973.

5. 결론

지금까지 1960년대 전반에 걸친 북한 최고 지도부 재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의 숙청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내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김일성은 정적을 제거하기에 앞서 정적들의 직무를 이동시켜서 이들의 힘을 빼놓거나 당구조를 개편하고, 간부 사이의 원한 관계, 경쟁 관계를 이용하는 등 매우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했다. 이러한 조치들 덕분에 김일성은 언제나, 더 약해진 적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누릴 수 있었다. 셋째, 김일성뿐만 아니라 다른 빨치산 2세대들과 김일성의 친척들 역시, 명백한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김일성을 지지하여 김일성의 적들을 격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김일성의 절대권력은 차차 완성되어 갔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특정 시점에 김일성이 특정 인물을 숙청했다고만 설명하는 식의 단순한 결정론적인 기존의 서사는 재고되어야 한다. 김일성의 신격화와 항일 혁명전통이 완성되기 이전 북한의 지도부는 과거 전체주의 이론에서 본 독자적인 지향이 없는 장기말이라기보단 더 많은 이익을 노리는 플레이어에 가까웠으며 이들은 본문에서 일부 보았듯이, 그리고 사료에서 확인되듯이¹¹⁹⁾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김일성의 의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영도체계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으며, 김일성 역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119) 『북한관계사료집 73』, p. 423.

60년대 숙청의 결과로 김일성과 같이 정권을 쟁취한 인물 중에서 김일성의 후계를 도모할 수 있는 인물들은 모두 정계에서 탈락하였으며, 김일성의 뒤를 이을 수 없는 노쇠한 인물들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김일성이 육성하여 영입한, 그에게 대항한다는 상상력을 가지지 못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노선이 집행되는 것을 원했던 김일성은 자신을 방해할 옛 동지들이 사라진 무대에서 부자 세습을 준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는 임재천의 표현대로 북한이 ‘왕조적 전체주의(dynastic totalitarianism)’로 전환할¹²⁰⁾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단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1960년대 북한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숙청됐는지만 주목하였으며 김일성의 충성스러운 하위 동맹자들이었던 이들이 왜 기존의 권력분배 체계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김정일이 어떤 차별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사료 역시 입수하였으나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20) Lim(2009), p. 4.

〈참고문헌〉

1. 북한 1차 문헌

- 『김일성 선집(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로동신문』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전기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23.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전기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24.
- 『위대한 한생: 당기발아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위대한 한생: 조선아 너를 빛내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7.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보』
- 『조선중앙년감』
- 『조선중앙텔레비죤』
- 『조선중앙통신』
-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재판: 1968.
- 리길송, 『혁명의 2세를 안아키우시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CD-ROM,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1-2005.
-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 『인민들 속에서(4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 조홍림, “혁명가유자녀들을 핵심골간후비로 키워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 는 조선로동당특유의 계승위업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71(1) (2025).

2. 국문 연구 및 번역서

- 『북괴숙청사』, 서울: 내외문제연구소, 1975.
- 『북한인물록』, 서울: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9. UCI:
<http://uci.or.kr//G901:A-0008270301@N2M>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5.
 UCI: <http://uci.or.kr//G901:A-0008500092@N2M>

- 고명균,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제3호 (2015). DOI: <https://doi.org/10.17321/rnks.2015.18.3.001>
- 김보미,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제54권 제3호 (2014). DOI: <https://doi.org/10.14731/kjir.2014.09.54.3.211>
- 김보미,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 김용규, 『시효인간』, 서울: 나라기획, 1978. UCI: <http://uci.or.kr//G901:A-0008324584@N2M>
- 김용현,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 『현대북한연구』 제5권 제1호 (2002). UCI: G701:C-00056488496@N2M
- 김진계, 김응교,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 (하)』, 서울: 현장문학사, 1990. UCI: <http://uci.or.kr/G901:A-0008268043@N2M>
-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서울: 폴리터쿠스, 2012. /G701:B-00115254316@N2M
- 김학준, 『북한 50년사』, 서울: 동아출판사, 1995.
- 김현식,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파주: 김영사 2007. UCI: <http://uci.or.kr/G901:A-0006152821@N2M>
- 려정, 『붉게 물든 대동강』, 서울: 동아일보사, 1991. UCI: <http://uci.or.kr/G901:A-0008256235@N2M>
-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제9권 제1호(2004). UCI: G701:A-00067019066@N2M
- 류승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갑산파 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형성에 관한 재고,” 『역사비평』 제152호 (2025). DOI: <https://doi.org/10.38080/crh.2025.8.152.367>
- 류현우,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서울: 동아일보사, 2025. UCI: <http://uci.or.kr/G901:A-0011964043@N2M>
- 문미라, “북한의 갑산파 숙청과 ‘혁명전통’의 굴절,” 『역사비평』 제139호 (2022). DOI: <https://doi.org/10.38080/crh.2022.05.139.340>

- 박병엽 구술, 유영구, 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서울: 선인, 2010. UCI: <http://uci.or.kr/G901:A-0006311602@N2M>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파주: 세종연구소, 2010.
- 서대숙 저,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UCI: I410-151-25-02-091579680@N2M
- 성혜량,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0.
- 션즈화 저, 김동길, 김민철, 김규범 역, 『최후의 천조』, 서울: 선인, 2017. UCI: I410-151-25-02-091579680@N2M
- 스즈키 마사유키, “북한 인민군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군벌관료주의자 숙청과 비대칭전략 완성,” 『한일공동연구총서』 7 (2004)./I410-ECN-0101-2014-900-003137280@N2M
- 스칼라피노, 로버트, 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파주: 돌베개, 2015. /I502-LIT00-KOR-0000509366@N2M
- 신경완, “결에서 본 김정일 상,” 『월간중앙』 1991년 6월호.
- 와다 하루끼 저,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UCI: G701:B-00118276150@N2M
- 와다 하루끼 저, 남기정 역,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파주: 창비, 2014. UCI: G701:B-00115263939@N2M
-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UCI: <http://uci.or.kr/G901:A-0008473752@N2M>
- 이준희,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UCI: <http://uci.or.kr/G901:A-0006165307@N2M>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UCI: G701:B-00091469295@N2M
- 정창현, “1967년 노동당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김정일 연설: 김정일 후계체제의 서막,” 『역사비평』 제112호 (2015). UCI: G704-000293.2015..112.013
-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김영사, 개정증보판, 2000. UCI: <http://uci.or.kr/G901:A-0005989215@N2M>

-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서울: 민음사, 2019.
/I410-ECN-0102-2021-300-000639240@N2M
- 조우찬, “북한 갑산과 연구: 기원, 형성, 소멸,”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UCI: G701:A-00086338679@N2M
- 쩌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 『김일성 전기』, 파주: 한올아카데미, 2022.
UCI: <http://uci.or.kr/G901:A-0010785409@N2M>
- 황일호, “68년부터 추진했던 「제2의 6.25」 작전,” 『월간중앙』 1993년 4월호.
- 황일호, “北韓의 4·19와 5·16 誤判 전모,” 『월간중앙』 1991년 9월호.
-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서울: 시대정신, 2006. UCI:
I410-ECN-0102-2018-300-002656782@N2M

3. 영문 연구

-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ume 59, Number 4 (2007). DOI: <https://doi.org/10.1353/wp.2008.0002>
-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 Politics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999.
- Gill, Graeme. *The Rule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London: Macmillan Press, 1988.
- Jansen, Marc, and Nikita Petrov, *Stalin's Loyal Executioner: People's
Commissar Nikolai Ezhov, 1895-1940*,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ress, 2002.
- Lim, Jae-cheon. *Kim Jong Il's Leadership of North Kore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 Myers, B. R., *North Korea's Juche Myth*, Busan: Sthele Press, 2015.
- Rees, E. A., “Stalin as Leader, 1937-1953: From Dictator to Despot”, in
E.A. Rees (eds) *The Nature of Stalin's Dictatorship: The
Politburo, 1924-1953*, Palgrave Macmillan, 2004.
- Roberts, Geoffrey, *Stalin's General: The Life of Georgy Zhukov*, New
York: Random House, 2012.
- Szalontai, Balazs,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Woodrow Wilson
Center Press an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Szalontai, Balazs,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Socio–Political System, 1945–1994,” in Adrian Buzo (eds), *Routledge Handbook of Contemporary North Kore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1.
- Tertitskiy, Fyodor, “1967: transition to absolute autocracy in North Korea,” in Adam Cathcart, Robert Winstanley–Chesters and Christopher Green (eds), *Change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n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8.
- Torigian, Joseph, ““You Don’t Know Khrushchev Well” The Ouster of the Soviet Leader as a Challenge to Recent Scholarship on Authoritarian Politics,”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24, No. 1 (2022). DOI: https://doi.org/10.1162/jcws_a_01043

4. 사료

-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UCI: <http://uci.or.kr/G500:1310377-02012061465078>
-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I』,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UCI: <http://uci.or.kr/G901:A-0010740325@N2M>
-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소장 북한 인물 자료 III』,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UCI: <http://uci.or.kr/G901:A-0011077054@N2M>
- 『북괴군사전략자료집』,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4.
- 『북한관계사료집 73』,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3.
UCI: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0435814>
- 『북한관계사료집 7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5.
UCI: <http://uci.or.kr/G901:A-0007957027>
- 『북한관계사료집 7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6.
UCI: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4088013>

- 1966년 11월 18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Korea-IU-250-005007/3-1966, 74. doboz.
- 1969년 6월 4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 Korea-1-002219/1-1969 (60.d).
- 1970년 11월 4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 Korea, 1970, 55th doboz (box), 81-25, 002263/5/1970.
- 1973년 10월 31일, 평양 주재 헝가리 인민공화국 대사관이 헝가리 외무성에 보낸 보고. XIX-J-1-j, Korea, 1973, 69.d, 81-22, 001450/9/1973.

“Telegram from the Hungarian Embassy in Pyongyang, ‘The Korean Workers’ Party’s 4th Congress’,” September 20, 1961,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NL OL XIX-J-1-j Korea 27a-003632/1961. Obtained by North Korean Materials Archive, IFES, Kyungnam University, and translated by Imre Májer.

“Excerpts from the Report of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Some New Aspects of Korean-Chinese Relations in the First Half of 1965’”, June 4, 1965,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VPRF, fond 0102, opis 21, papka 106, delo 20, listy 14-27.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Sergey Radchenko.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No. 76.203, TOP SECRET, June 13, 1967,” June 13, 196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rchive of the Roma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Eliza Gheorghe.

“Col. Mieczysław Białyek, ‘Record of Conversation conducted by Col. Białyek with USSR Military Attaché Col. Latishev’”, April 28, 196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IPN, 2602/8420. Obtained by Marek Hańderek and translated by Jerzy Giebułtowski.

〈Abstract〉

Political Purges and Power Realignment in 1960s North Korea

Lee Jun-he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leadership reshuffling in North Korea during the 1960s. Previous scholarship ha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two incidents—the 1967 Kapsan Faction Incident and the 1969 cases involving Kim Chang-bong and Heo Bong-hak—thus failing to capture the broader trajectory of elite politics throughout the decade. Moreover, earlier studies have offered little systematic explanation of the concrete strategies Kim Il Sung used to eliminate his political rivals.

This study reconstructs the political history of 1960s North Korea by focusing on leadership restructuring, using North Korean sources disclosed during the Kim Jong Un era and diplomatic documents from the Soviet Union and Hungary, thereb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im Il Sung's purges were not limited to 1967 and 1969 but proceeded sequentially throughout the decade. Second, Kim employed diverse strategies—including personnel reshuffles and party organizational reforms—and consistently secured a broad coalition of allies. Third, second-generation partisans and members of Kim's own family, as key beneficiaries of the

consolidation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played a more active role than previously assumed.

Thus, North Korean politics in the 1960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totalitarian system ruled by a single omnipotent leader but as a political arena in which subordinate actors with their own interests clashed beneath Kim. His ultimate victory in these struggles paved the way for North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dynastic totalitarian state.

Keywords : Kim Il Sung, Kim Chang Man, Pak Gum Chol, Ri Hyo Sun, Kim Gyang Hyop, Ho Bong Hak, Kim Chang Bong, 2nd party conference of the WPK, Kapsan faction incident, purge